

동아미디어그룹 사내보 東友

2면

대한민국 응급의료 체계의
민낯 드러낸 <표류>

3면

동아일보 독자센터
'우먼파워' 보여준 3人

4면

“스피디한 전개, 물입도 높인 배우 열연”
<가면의 여왕> 호평 속 출발

4·19혁명 동아일보 호외, 세계기록유산 된다

유네스코 자문위서 ‘등재권고’ 판정…신문 자료 6건 중 5건이 본보 호외



3·15 부정선거와 이승만 장기 독재에 항거하는 시민들이 4월 6일 서울 종로 집회에 대거 참여했다.

03.15.

04.23.

04.26.

04.24.

04.21.

04.27.

04.21.

04.26.

04.24.

04.27.

04.21.

04.26.

04.24.

04.27.

04.21.

04.26.

04.24.

04.27.

04.21.

04.26.

04.24.

04.27.

04.21.

04.26.

04.24.

04.27.

04.21.

04.26.

04.24.

04.27.

04.21.

04.26.

04.24.

04.27.

04.21.

04.26.

04.24.

04.27.

04.21.

04.26.

04.24.

04.27.

04.21.

04.26.

04.24.

04.27.

04.21.

04.26.

04.24.

04.27.

04.21.

04.26.

04.24.

04.27.

04.21.

04.26.

04.24.

04.27.

04.21.

04.26.

04.24.

04.27.

04.21.

04.26.

04.24.

04.27.

04.21.

04.26.

04.24.

04.27.

04.21.

04.26.

04.24.

04.27.

04.21.

04.26.

04.24.

04.27.

04.21.

04.26.

04.24.

04.27.

04.21.

04.26.

04.24.

04.27.

04.21.

04.26.

04.24.

04.27.

04.21.

04.26.

04.24.

04.27.

04.21.

04.26.

04.24.

04.27.

04.21.

04.26.

04.24.

04.27.

04.21.

04.26.

04.24.

04.27.

04.21.

04.26.

04.24.

04.27.

04.21.

04.26.

04.24.

04.27.

04.21.

04.26.

04.24.

04.27.

04.21.

04.26.

04.24.

04.27.

04.21.

04.26.

04.24.

04.27.

04.21.

04.26.

04.24.

04.27.

04.21.

04.26.

04.24.

04.27.

04.21.

04.26.

04.24.

04.27.

04.21.

04.26.

04.24.

04.27.

04.21.

04.26.

04.24.

04.27.

04.21.

04.26.

04.24.

04.27.

04.21.

04.26.

04.24.

04.27.

04.21.

04.26.

04.24.

04.27.

04.21.

04.26.

04.24.

04.27.

04.21.

04.26.

04.24.

04.27.

04.21.

04.26.

04.24.

04.27.

04.21.

04.26.

04.24.

04.27.

04.21.

04.26.

04.24.

04.27.

04.21.

04.26.

04.24.

04.27.

04.21.

04.26.

04.24.

04.27.

04.21.

04.26.

04.24.

04.27.

04.21.

04.26.

04.24.

04.27.

04.21.

04.26.

04.24.

04.27.

04.21.

04.26.

04.24.

04.27.

04.21.</div

대한민국 응급의료 체계의 민낯 드러낸 <표류>

히어로콘텐츠 6기 취재 후기…“독자에게 체험을 선사할 인터랙티브 기사”가 최우선 목표”



① 인터랙티브 기사 ‘강남에 응급실이 없었다’의 시작화면. 이 기사에는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가슴 통증을 호소한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병원 20여 곳에 전화를 돌리는 119구급대원들의 대화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대로 담겼다. ② 인터랙티브 기사 ‘표류 속으로’ 중 응급실을 360도 영상으로 구현한 모습. 응급실 뿐 아니라 119종합상황실, 119구급차, 덕터헬기 안의 모습도 360도 영상과 음성으로 재구성해 현장성을 살렸다. 화면 속 더하기 표시 ③를 누르면 현장에 대한 세부 설명도 볼 수 있다. ③ 왼쪽부터 히어로콘텐츠 6기 팀원인 편집국 홍진환, 송혜미, 위은지, 이지윤, 조건희(팀장) 기자, 광경민 UI·UX 디자이너, 임상아 ND(뉴스룸 디벨로퍼), 이상환 기자, 임희래 ND.

위급한 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국내 응급의료 실태를 다룬 히어로콘텐츠 6기의 <표류: 생사의 경계에서 떠돌다가>가 4월 3일 보도를 마무리했다. 독자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날으며 정치권의 움직임 등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표류>의 취재 후기를 전한다.

응급의료 <표류>는 얼핏 흔해 보일 수 있는 소재를 다뤘습니다. 하지만 독자와 사회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시리즈를 마치자마자 이를 뒤 당정은 응급의료 대책을 발표했고,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동아일보가 말이 없는 환자와 유족을 대신해 그 울분을 세상에 외쳐줬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표류>가 이런 변화와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건 기존 보도와 전달 방식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표류>의 뒤에는 ‘탁월한 콘텐츠를 위해 시간과 자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동아의 원칙, 그리고 2020년

1기 출범 이후 2년 넘게 다져진 히어로콘텐츠의 제작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협업이 낳은 체험형 콘텐츠

6기 팀은 처음부터 ‘독자에게 체험을 선사할 인터랙티브 기사’를 최우선 목표로 정했습니다. 응급의료가 기시감이 있는 소재인 만큼 지금껏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다뤄야 했습니다.

취재기자와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디지털이노베이션 팀과 디프런티어센터 디알파팀은 2년간의 제작을 통해 축적한 기술력과 해외에서도

주목하는 결과물을 함께 만든 경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6기 기자들은 이들과 함께 매일 해외 언론의 디지털 페이지는 물론 명품브랜드 사이트까지 레퍼런스 삼아 기획 아이디어를 짰습니다. 독자들에게 ‘무엇’을 보도할 것인가를 넘어 ‘어떻게’ 전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었던, 신선한 자극이었습니다.

제작은 ‘기획→취재→코딩→디자인’의 방식이 아니라 각 영역을 동시에 추진하는 전략을 셨습니다. 계획대로 취재가 되지 않거나 막상 구현했을 때 ‘와 닿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면 정성들여 빛은 도자기를 깨는 심정으로 콘티를 엎었습니다. 거꾸로 현장에서 취재한 내용이 예상보다 단단하거나 디자인 요소가 매력적이면 또 다시 콘티를 바꿨습니다.

‘강남에 응급실이 없었다’와 ‘그들이 구급차를 탔던 날’, ‘표류 속으로’ 등 3건의 인터랙티브 기사는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독자 체험’이라는 목표에 가까워지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거듭한 끝에 낳은 결과물이었습니다.

어렵게 열린 문, 끝나지 않은 이야기

<표류>는 핵심 현장인 119구급차 동승 하기를 받는 데에만 꼬박 석 달을 투자했습니다. 소방 측은 일선 구급대와 병원의 사이가 틀어질까 봐 우려했고, 응급실도 마찬가지 이유로 취재 협조를 주저했습니다. 소방서와 응급실 문턱이 높도록 찾았더니 설득한 끝에 그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이후 크리스마스와 새해 첫 날 설 연휴에도 구급차와 응급실을 지켰습니다. 기약 없는 ‘뻗치기’였지만 섭외가 어려웠던 만큼, 귀한 기회로만 느껴졌습니다.

‘주인공’을 찾는 과정도 그랬습니다. 문제의식을 관통하면서도 독자가 감정을 이입할 수 있는 환자를 찾는 일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찾은 이준규 군(14)과 박

종열 씨(40)를 인터뷰하고 나서는 전체 시리즈 구성을 뒤엎었습니다. 취재 동안 만난 다양한 환자의 사례를 단편적으로 소개하는 것보다, 철저히 두 환자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게 오히려 응급의료 체계의 총체적 문제를 깊이 있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이 들었습니다.

<표류>에 담긴 구급차-응급실 르포부터 두 주인공의 이야기까지, 만약 우리의 보도가 정해진 시간 안에 결과물을 내야 하는 프로젝트였다면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표류>의 보도는 마무리됐지만 ‘해단식’에서 취재팀은 “어떤 식으로든 <표류>의 후속 보도를 이어가자”고 다짐했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응급환자가 거리를 떠도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히어로콘텐츠 6기는 보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편집국 정책사회부 조건희

취재기자가 만든 ‘AI 추천기사 for you’ 디프런티어센터 서영빈 기자의 AI 기사추천 시스템 개발기



디프런티어센터 서영빈 기자가 직접 개발한 인공지능 기사 추천 시스템이 적용된 동아닷컴 홈페이지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1월, 디프런티어센터 점심 자리에서 선배들이 전해준 얘기가 시작이었다. 1, 2년 전부터 동아닷컴 홈페이지에 기사추천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사추천 서비스를 실시 중인 언론사는 대부분 외부업체가 개발한 시스템을 사용한다. 이 경우 추천 기사 목록에는 3, 4일 지난 기사가 뜨기도 하고, 광고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도 한다. 뉴스와 독자의 생리를 이해하는 기자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추천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 인공지능(AI) 프로그래밍을 공부했던 중이었기에 직접 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4, 5년 전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출입 때부터 고용통계 분석을 위해 프로그래밍 언어와 통계수학 공부를 시작한 걸 계기로 최근에는 AI의 원리인 딥러닝까지 공부하고 있던 터였다. 그 내용 중에 추천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었다. 주말 내내 이를 적용해 시스템의 원리를 구

현한 샘플 페이지를 만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프로젝트 추진이 결정됐다.

4월 창간 기념일을 목표로 만들어보자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이미 딧컴 개편과 디지털콘텐츠 편성, 포털 아웃링크 전환 준비가 동시에 진행돼 동아닷컴 개발자 중에서는 손이 빈 사람이 없었다. 결국 직접 개발에 도전하기로 했다.

추천 시스템의 원리는 ‘임베딩’이다. 기사의 주제를 차원의 벡터공간에 위치시키는 AI 모델을 활용하는 것이다. 주제가 비슷한 기사일수록 공간 속에서 가까운 위치를 갖게 되는데, 그 거리를 계산함으로써 비슷한 주제의 기사를 찾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개별 독자의 평균적 관심과 밀접한 기사도 알아낼 수 있다.

어려운 부분은 이 같은 작업을 매 기사 클릭 때마다, 많게는 1분에 5000번까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백만 명이 클릭해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하고 간결한 계산기를 만드는 일은 기사를 쓰는 것 이상으로 신

경이 곤두서는 일이었다. 3개월 간 공들여 작업했고, 마지막 한 달은 저녁과 주말을 모두 반납했다. 동아닷컴 개발자들의 도움도 컸다. 이들은 추천 기사를 페이지에 연결하는 과정, 특히 부하를 분산하기 위해 여러 대의 서버를 연결시키는 과정에 큰 도움을 줬다.

그렇게 ‘우리 손으로 만든’ 기사 추천 시스템이 탄생했다. 기준의 기사 추천은 ‘많이 본 뉴스’ 등 주로 조회 수가 높은 기사를 모든 독자에게 동일하게 추천되는 시스템이었다. 반면 새로운 추천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개별 독자의 관심과 기사 열람 이력을 반영해 맞춤형 추천 목록을 만든다.

동아의 기사추천 시스템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 고도화를 통해 유튜브 등에서 활용하는 PMI 모형(내가 본 콘텐츠를 본 다른 사용자들이 어떤 콘텐츠를 주로 보는지 찾아주는 모델)을 도입할 예정이다.

편집국 디프런티어센터 서영빈

동아일보 독자센터 '우먼파워' 보여준 3人 :

20년 넘게 동아일보와 함께한 심숙자·이애자·강영실 사장 인터뷰



왼쪽부터 심숙자 울산양정 독자센터 사장, 이애자 광양제철 독자센터 사장, 강영실 마포서강 독자센터 사장. 올해 근속 30년을 맞은 심 사장이 동아일보 창간 103주년 기념식에서 받은 공로패를 들고 있다.

"혼자 두 아들을 키우기 위해 시작한 게 어느새 30년이네요."

동아일보 울산양정 독자센터 심숙자 사장(65)은 동아와의 시작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올 4월 동아일보 창간 103주년 기념식에서 30년 근속상을 수상했다. 모든 신문사의 여성 독자센터 사장 가운데 최장 근속자다.

"낮에 아이들을 돌보려면 무조건 새벽일이어야 했지요. 그때 독자센터 총무 모집 광고가 눈에 띄었어요. 여자라고 계속 거절당했는데 악착같이 매달려 시작할 수 있

었어요. 결국 울산의 첫 여사장이 됐지요."

심 사장은 "센터가 정말 내 것이라 여겨 모든 업무를 직접 했고 엄마같이 영업사원에게 아침밥도 차려주며 가족처럼 대했다"고 했다. 그러자 사원들이 한 부라도 더 확장해 왔다는 것.

30년의 시간 속에는 기억에 남는 일화도 많다. 20년 전에는 본사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복귀하던 중 버스가 고장 난 적이 있다. 심 사장은 "일을 대신할 배우자가 있는 타 센터와 달리 나는 혼자라 배달 걱정만 앞섰다. 휴게소에서 차를 얹어 타고 겨

우 배달시간을 맞췄다"고 회상했다. 그랬던 그에게 이젠 40년 근속상이라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현재 동아일보 독자센터 사장 653명 가운데 여성은 117명(17.9%)이다. 근속 30년을 앞둔 사장도 여럿이다. 26년간 독자센터를 운영한 이애자 광양제철센터 사장(65)은 "26년 전 남편이 포스코 재직 때라 주부 부업 제한이 있었는데 유일하게 신문과 우유만 가능했다. 그때 당시 센터사장에게 인수 제안을 받았다. 그게 운명이었다"고 했다. "여성으로서 센터 운영이 쉽진 않았죠.

그래도 지금은 광양 전체의 신문을 책임지고 있다는 게 제 최고의 자부심이에요."

이 사장은 기억에 남는 독자도 떠올렸다. "배달 때마다 문 앞에서 우유를 주시던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여자 혼자 새벽은 위험해서 매일 안부를 확인해야 마음이 편하다'는 말씀을 듣고 평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는 "이런 따뜻한 독자님들 덕분에 지금까지 왔다"고 말했다.

올해로 25년째인 마포서강센터 강영실 사장(58)은 우수독자센터 사장에게 주는 황금대상을 두 차례나 수상한 베테랑이

다. 지금은 고인이 된 남편이 공기업 재직 중 과로로 쓰러지면서 친구 남편의 독자센터에서 일을 시작한 게 인수로까지 이어졌다.

강 사장은 "부드러운 대화법, 독자와의 관심사 공유 같은 여성 특유의 세심함이 성공적으로 센터를 이끌어 온 비결"이라고 말했다. "가정과 센터 일의 병행이 쉽지 않았지만 동아가 힘들 때마다 곁에 있어줬어요. 사람을 참 소중하게 생각하는 곳이라 고맙습니다."

마케팅본부 마케팅총괄팀 손수영

다나카와 돌아온 <빨아빠리보2>…1회 만에 조회수 100만 돌파

출장 세탁 콘셉트로 로드몰 추가되며 인기몰이



시즌2로 돌아온 <빨아빠리보>가 첫 회 업로드와 동시에 115만 조회수를 돌파하며 제대로 터졌다. 풍자의 뒤를 이어 <빨아빠리보2>의 MC를 맡은 대세 중 대세, 다나카의 색다른 매력, 그리고 시즌1과 확 달라진 포맷이 통했다는 평가다. 콘텐츠가 업로드 될때마다 각종 커뮤니티와 SNS에는 짧은 클립들이 올라오며 화제와 인기를 동시에 잡고 있다.

시즌2의 첫 게스트는 사유리가 장식했다. 사유리는 '한국어를 잘하는데 못하는 척 한다'는 '대한일본인' 이미지 세탁에 나섰다. 하지만 해명에도 불구하고, MC 다나카의 허를 찌르는 질문에 사유리의

의도치 않은(?) 능숙한 한국어가 튀어나오면서 큰 웃음을 안겨줬다. 다나카와 사유리의 이룬바 '환장 캐미'에 해당하는 조회수 115만회(9일 기준)를 기록했다.

게스트가 빨래방을 찾아 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즌1과 달리 이번 시즌부터는 출장 세탁 콘셉트로 바뀌며 로드몰이 추가됐다. MC 다나카는 길에서 만난 시민들에게 게스트의 이미지에 대해 묻는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날 것 그대로의 반응이 새로운 웃음 포인트다. 다나카와 인터뷰를 하기 위해 그의 노래 '와스레나이'를 크게 틀어 놓은 미용실 주인부터 추격전을 하는 시민까지 등장하며 이전과 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자칫 단조로울 수 있는 배경이 매회 바뀌는 것도 이번 시즌에서 달라진 점이다. MC가 게스트의 집이나 사무실 등을 직접 방문해 대화를 나눈다. 게스트는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폭넓은 대화를 나누고 시청자들은 매회 신선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것. <빨아빠리보2>에는 앞으로 권혁수, 데이식스 성진, 레오제이, 비와이 등 다양한 게스트들이 등장할 예정이다. 다나카와의 빵빵 터지는 재미를 기대해도 좋다.

경영전략실 X-스페이스팀 김상하

채널A 홈페이지, 콘텐츠 경험·이용 편의성 높여 재단장



콘텐츠 가리는 광고 없애고 '디지털 스페셜 메뉴' 신설

채널A 홈페이지가 4월 10일 새롭게 단장했다. 개편된 홈페이지는 채널A 콘텐츠에 대한 주목도를 높인 게 특징이다. 메인·방송 메뉴 화면에 채널A 프로그램 배너를 가로 여백 없이 크게 배치했고, 배경색을 검정으로 바꿔 주력 콘텐츠를 부각했다. 개편 홈페이지는 기본 가로폭이 1260px(픽셀)로 기존 1024px 대비 화면에서 콘텐츠가 차지하는 면적이 약 23% 더 늘었다.

개편 홈페이지는 PC·모바일 기기에 상관없이 동일한 이용 경험을 주는

'웹반응형'으로 제작됐다. 방송 콘텐츠 모아보기 영역과 디지털 편성표도 추가됐다. 뉴스 메뉴에선 콘텐츠를 가리거나 화면을 따라 움직이는 광고를 뺏고, 광고와 뉴스 영역을 분리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채널A 뉴스 유튜브 콘텐츠를 모아볼 수 있도록 '디지털 스페셜' 메뉴도 신설됐다.

채널A 홈페이지는 상시 개편이 이뤄진다. 이달 중 VOD '자동결제' 이용권 옵션 또한 도입될 예정이다. 채널A 웹페이지 개편 기획은 경영전략실 디지털이노베이션팀, 디자인·개발 작업은 동아미디어엔이 진행했다.

경영전략실 디지털이노베이션팀 임현석

“스피디한 전개, 몰입도 높인 배우 열연” 〈가면의 여왕〉 호평 속 출발

“눈을 뗄 수 없는 극강의 서스펜스 선사할 것”



〈가면의 여왕〉 포스터. 극을 이끌어 가는 여성 4인의 서사를 강조했다.

채널A 새 월화드라마 〈가면의 여왕〉이 지난 24일 드디어 가면을 벗었다. 2021년 채널 자체 최고 시청률(10.3%)을 달성한 〈쇼윈도:여왕의 집〉 이후 2년 만에 선보이는 드라마 〈가면의 여왕〉은 김선아, 오윤아, 신은정, 유선의 열연과 휘몰아치는 스토리 전개로 첫 회부터 시청자들을 사로 잡았다.

〈가면의 여왕〉은 화려하게 성공한 세 여자 앞에 10년 전 그녀들의 거짓말로 살인자가 된 절친이 나타나면서 가면에 감춰져 있던 진실이 드러나는 미스터리 멀로 복수극이다. 첫화부터 10년 전 호텔 2401호에서 벌어진 사건의 충격적인 전말과 흥미진진한 여성 서사로 눈을 뗄 수 없는 흡인력을 보여줬다. 4회에서는 10년 전 도자이(김선아 분)를 성폭행한 남자이자 그날 이후 10년 간 그녀가 쫓고 있는 ‘가면맨’의 정체가 송제혁

(이정진 분)으로 밝혀지는 충격 반전이 드러났다. 시청자들은 ‘이정진이 빌런이었어? 소름돋네’, ‘뒷 스토리가 너무 궁금해지네요’, ‘전개 속도 미쳤다. 완전 반전에 반전’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명품 배우’ 오윤아, 신은정, 유선의 열연에도 호평이 이어졌다. 네 배우들은 각 캐릭터에 완벽히 몰입해 극의 긴장감을 극대화했다. 여기에 ‘여왕의 남자’ 오지호, 이정진, 신지훈이 얹히고 설킨 관계를 형성하며 미스터리 멀로 복수극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시청자들은 ‘연기 잘하는 배우들이 다 모여 몰입도 최고’라고 호평했다.

그동안 〈거짓말의 거짓말〉, 〈쇼윈도:여왕의 집〉과 같이 여성서사가 강한 작품을 선보여 온 드라마플러스본부는 〈가면의 여왕〉에서 한층 더 깊이 있는 서사를 만드는 데 주력했다. 제작진은 “겉으로는 우아하고 완

벽해 보이는 4명의 여자들이 복수를 위해, 가족을 위해, 그리고 스스로를 위해 거침없이 욕망을 드러낼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서로 충돌하고 연대하는 과정을 진정성 있고 섬세하게 그려내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고 전했다.

〈가면의 여왕〉은 매회 반전을 거듭하며 미스터리가 점차 고조될 예정이다. 제작진은 “중반부를 지나면 새롭게 밝혀지는 빌런과 주인공들 간에 새로운 2막이 펼쳐질 것”이라며 “한 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극 강의 서스펜스를 선사해 최종회까지 시청자들이 사건의 진상이 무엇인지 함께 추리 할 수 있도록 극을 이끌어갈 예정”이라고 기대감을 높였다.

편성전략본부 C-밸류업팀 김은정
드라마플러스본부 드라마플러스1팀 최다예

A모닝포럼, ‘디지털 금융 소비자 보호’ 논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월 1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A모닝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채널A와 동아일보가 4월 1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제10회 〈A모닝 포럼〉을 개최했다. 대면으로 포럼이 열린 것은 코로나19 발발 이후 3년 8개월 만이다.

이날 포럼은 ‘디지털 금융 시대의 소비자 정보보호’를 주제로 진행됐다. 김차수 채널A 대표이사 부사장의 개회사에 이어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병훈 KAIST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이주환 하나은행 정보보호본부장이 강연자로 나서 디지털

금융과 정보보호 트렌드를 설명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축사를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해킹으로 고객이 피해를 입으면 거래소가 손실을 보상하는 입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소비자 보호 입법 계획을 강조했다.

채널A와 동아일보는 2016년 4월 첫 〈A모닝 포럼〉 이후 2019년까지 매년 2~3차례씩 A모닝 포럼, K디펜스 포럼 등 조찬 포럼을 진행해왔다.

전략기획본부 사업기획팀 주성원

DAMG 수상소식

채널A 서상희 기자, GC녹십자 언론문화상 수상



채널A 서상희 기자(사진)가 제45회 ‘GC녹십자 언론문화상’을 수상했다. 서 기자는 코로나19와 저출산 문제에 대해 다양한 현장 보도를 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대한의사협회와 녹십자는 매년 국민 보건과 의약계 발전에 기여한 언론인에게 이상을 수여한다.

〈20세기 청춘〉 보도본부 구가인 기자



〈세습 자본주의 세대〉 출판국 고재석 기자



신간소개

모든 청춘은 찰나의 젊음 속에 불안과 우울을 품는다. 하지만 20세기 대한민국 청춘들에겐 시대 자체가 그랬다. 88올림픽 때 굴렁쇠 소년을 보고 희망을 꿈꿨지만 갖은 ‘붕괴’와 IMF로 불안을 품었고, 쪽수 많은 동년배들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했다. 1981년생 웅킹맘이자 18년 차 기자인 저자가 바라본 세대의 자화상이 세밀하고 유머러스하게 담겨있다.

〈세습 자본주의 세대〉는 1980년대생들이 경험한 한국 자본주의의 축복과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80년대생들은 산업화 이후 풍요 속에서 태어나 큰 꿈을 펼치라는 말을 듣고 자랐지만, 막상 성인이 되어 저성장에 적응하라는 훈계를 듣는다. 사다리를 잃은 세대, 결혼을 못하는 세대, 결혼과 부동산 시장의 패자 등으로 불리며 ‘영끌족’이 된 80년대생의 현실을 풀어냈다.

▼ New face

새 식구를 소개합니다
① 입사 후 포부 ② 요즘 관심사 ③ 최종 직장
이름 / 부서



임희래 / 동아일보
편집국



이민종 / 채널A
전략기획본부

① 인터랙티브 뉴스를 기반으로 하여, 동아일보가 모든 세대의 뉴스가 될 수 있도록 디지털 디리를 놓는 개발자가 되고 싶습니다. 개발과 내용 둘 다 잡을 수 있는 뉴스를 만들겠습니다.
② 클라이밍이라는 운동에 빠져 있습니다. 원래 운동을 싫어했지만, 문제를 푸는 방식의 운동이다 보니 재미있게 즐길 수 있어 일주일에 2회 정도 가고 있습니다.



손수연 / 채널A
콘텐츠사업본부



신지민 / 채널A
콘텐츠사업본부

① 첫 사회생활을 채널A와 함께 시작하게 되어 행복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채널A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밸로 뛰는 영업사원이 되겠습니다.
② 요즘 야구로 인생을 배우고 있습니다! 9회 말 20이웃까지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을 보며 투자를, 암흑기에 빠진 팀을 응원하며 인내를 배우고 있습니다.



윤석인 / 채널A
콘텐츠사업본부



이학열 / 채널A
콘텐츠사업본부

① 입사할 때의 다짐을 간직하며, 긍정적으로 업무를 해내고 꾸준하게 성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② 지난 여름부터 시작한 테니스에 여전히 흥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퇴근 후 걷고 뛰며 회사에서의 생각을 정리하고 다음 날과 한주의 행복한 일들을 계획하곤 합니다. 국내외 여행지와 근처 맛집이나 카페를 저장해 두고 하는데 주말이나 연휴에 한 곳씩 다녀오고 싶습니다.



석우석 / 채널A
경영전략실



조문정 / 채널A
경영전략실

① 대중이 열광하고 지갑까지 거침없이 여는 콘텐츠를 만들겠습니다. 채널A가 사랑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는 CD가 되겠습니다.
② 요즘 건강에 관심이 커져서 좋은 영양제와 건강식품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튼튼한 체력이 곧 아이디어로 연결된다고 믿기 때문에 강 조깅과 배드민턴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① X-스페이스 팀의 팀원이 되어 정말 좋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거고, 안 해본 것도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성장하겠습니다.
② 첫 번째는 최근 페스티벌이나 콘서트를 많이 다니면서 기타를 잘 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좋아하는 그림 스타일을 찾어서 저만의 방식으로 잘 표현하고 싶습니다.